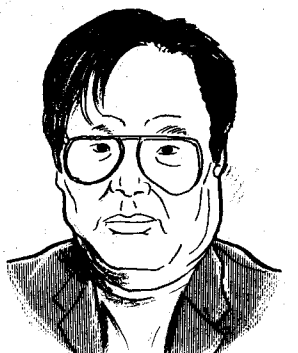


“아직도 미완의 혁명”

2월

4월주제 ‘혁명’



황문수

《문리대교수·철학》

로 물아놓은 군화소리에 4·19도 유린당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4·19는 이제 역사의 묵은 갈피 속에 묻혀 버린 사건인가? 초라하고 외로운 기막힌 기억을 갖는 것으로 기억한다. 혁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비록

4월혁명은 민주화를 위한 저항의 출발점이었으며 민주주의 실현과 함께 완성

로 물아놓은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우리는 흔히 4·19정신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4·19정신이 무엇이었는가를 진지하게 탐구하지 않는 것 같다. 4·19정신을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탐구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오늘날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문제들이 총론적으로는 거의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4월혁명이 제시한 이념중의 어느 하나도 현실적으로 실현된 것이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다. 4월혁명이 제시한 이념은 더욱 구체성을 더해가면서 지금도 남아있고 그 이념이 실현될 때까지는 이념으로서의 생명성을 상실하지 않을 것이다. 4·19정신, 또는 4월혁명의 이념은 지금도 살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4월혁명은 아직은 미완(未完)의 혁명이라고 진행중의 혁명이다. 4월혁명은 민주화를 위한 저항의 출발점이었으므로, 그것은 아니라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때 비로소 완결되는 혁명인 것이다.

이 미완의 혁명을 완결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역사적 과제라고 해도 너무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역사적 과제를 담당할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가 하는 점에 있다. 헌법 전문에 4·19의 계승을 남기기도 했다가 빼

기도 했다가 하면서 제대로 4·19에 욕을 보이는 사람들이 미완의 혁명을 완결시켜줄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 그들에게는 4·19는 오히려 지워 버리고 싶은 역사의 한 장일 것이다. 4월혁명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타협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의해서만 완결될 것이다. 언젠가는 잔인하지 않고 화려한 4월을 맞이하고 싶다.

학원 민주화가 발전의 초석

교수·학생·직원이 주체로 나서야 할 시기

모든 학생들은 스스로가 학원의 주인이라는 인식하에 등록금 투쟁상황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등록금문제를 거론하기 앞서서 학내의 모든 비합리적인 문제점들이 무엇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바로 학원의 비민주화에 있다. 학원의 주체는 총장을 포함한 재단, 교수, 학생, 노조 등의 4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교의 경우는 형식적으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비해 실질적인 내용은 서로 공허하기가 힘들다. 민주화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대학에서 각 기구나 개인이 이해관계만 주장하는 양상을 볼때 학원주체의 한사람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총장선출문제, 등록금문제, 중학부과문제, 노조위원장 해고문제, 열악한 교육환경, 현시점에서 어는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인데, 아합을 한견지 일관성 없이 그냥 넘어간다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다.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란 말이 있듯이 국가의 민주화를 외치기 이전에 학내의 민주화부터 기본을 다져 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재단, 교수, 학생, 노조의 4자가 대등한 관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재단쪽의 인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민주화를 이루는 첫걸음으로써 학교당국은 학교의 총예산과 결산, 양캠퍼스간의 예산배정비율, 각 단대별 예산배정비율을 대학주체를 통해서 완전히 전면 공개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내는 등록

금만해도 적지 않은 돈인데도 학교발전상황과 비교해 볼때(특히 수원캠퍼스),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학원의 주인으로서 학교내의 재정 상황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두번째로, 총장 선출문제이다. 총장이란 국가로 비유하면 대학의 대통령이며 대학의 상징이다. 그런데 본교의 상황을 볼때, 특정 소수에 의해 농락된 유신체제의 ‘체육관 선거’를 연상케 한다. 무슨 논리로 학원의 주체자인 학생들이 배제되어져야 하는가?

총장선출문제도 민주적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노조위원장의 해고 문제이다. 현대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이젠 노사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다.

본교 노조도 역시 학교를 지탱해 나가는 하나의 대등한 학원의

주체자인 것이다. 민주적인 노사문제해결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할 학교당국에서 민주적 절차와 다수의 의견을 무시한채 인위적으로 노조위원장을 해고조치 했다는 것은 민주노조를 탄압해온 역대독재정권이 강압적 노사문제 해결책과 다를바 없는 시대착오적 만행이다. 따라서 노조위원장의 해고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학내에 비민주적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다. 그렇지만 어떠한 노력과 희생의 댓가를 치루더라도 학내의 비민주적 요소들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당국과 학생들간의 솔직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지한 해결의지가 절실히 요청된다.

이상원

(사회대 경영·3)

학문·사상의 자유는 요원한가 가중되는 출판탄압 더이상 좌시못해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바로 본교의 3가지 교훈이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정치학원내의 민주화 뿐만이 아닌 나아가 우리 민족, 사회, 국가의 민주화에 이르게 되는 염원에서 지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주화의 바람은 한편 지방자치제, 토지공개념실시등으로 만개하는가 싶더니 민주자유당출범과 더불어 현재는 5공화국보다도 더 노골화된 공안통치의 바람이 사회각 분야에 불어오고 있는 듯하다.

특히 대학생들의 사상적 토대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과학적 출판사에 대한 탄압은 실로 그 극치를 달리고 있다.

얼마전 국가안전기획에 잡혀 신문과 각 매스컴을 떠돌아다니는 박노해씨. 그 박노해씨인 이 자주 기고하고 한때는 밀접한 연관이 있던 노동해방문학을 정기구독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더니 출판사에서 전화통화를 안받고 학교와 한 서점에 노동문학사 판매부장이 있었다. 이유인즉, 노동문학사 편집실에서 있었던 언제, 어디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테 끌려갔지 몰라서 사무실에 못들어가고 나와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윤호 도서출판 협을 필두로 해서 대동, 녹두, 기쁨 등 사회과학출판사들을 계속적인 세습사찰등 거의 업무를 못하게 하고 있다 한다.

연두에 노태우대통령은 지난시절 지나치게 경색된 반공정책과 이념들을 이젠 지양하고 여러 사상을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게 하여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뒤로는 계속적인 연행, 구속, 세습사찰의 행각들을 자행해온 노정권은 눈이 멀어 국민들을 뭉로 생각하는가?

민중들의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상태에서 6공화국은 눈가리고 아웅의 작태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6공화국에 이르러 출판인의 연행구속은 현재 1백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7년간의 5공화국정권에 구속된 33명보다 3배나 더 증가한 상태이다.

한편 사회과학도서출판사들 활발한 활동을 보인 ‘협’출판사는 지난 3월 시가 6천만원 상당의 도서 1만여권을 구조경찰서에 압수당했다.

이것은 일시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1년여동안 협출판사 인원이 앞에서 이야기 한대로 출판계에 대한 탄압은 현재 극치를 달리고 있다.

노동문학사의 사찰(?)은, 협출판사의 계속적인 탄압등 일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서서히 사회과학서적 출판사들을 조여들고 있는 현실이다.

서울캠퍼스 앞 사회과학도서 판매점인 지평을 갔을때의 일

이다.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지평을 두리번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나중에 알고보니 경찰서 형사였다. 혹시나 볼은서적이나 판매하고 있지는 않나 하여 한번 둘러보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사회과학출판사와 서점들은 항상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에서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금지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권문제로 전세계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밖에 없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사회가 진행되는 근본원리와 사회를 보는 방법을 정치경제학적으로 해석해 놓은 책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책이 왜 금지인가? 마르크스의 자본론 말고도 금지된 것은 수십종의 책이 있었으나 무엇이 금지가 아닌 서점에서 파는 책도 사회과학도서면 불신검문당할때 연행부터 당하는 이 세상.

우리나라의 법적으로 허용된 책도 일선 생활에서는 금지된 이러한 사회의 모순들은 언제쯤 우리들의 눈에서 없어지게 될 것인가?

다시금 우리학교의 교훈을 되뇌어본다.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말해봅시다’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이야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 200자 원고지 4~6매 ◇보낼곳: 서울·수원(본사 편집실)

학생은 이시대 마지막 양심 보다높은 도덕적가치 추구해야

캠퍼스에 발을 들여 놓은지 7년째 되는 어느 대학생의 본노를 말해볼까 한다.

만 4년만에 돌아온 캠퍼스는 너무나도 좋았다. 등록 첫날 1학년때 보다도 더 설레이는 기분으로 학교에 갔다. 불편해진 교통으로 인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짜증도 많이 났으나 학교에 도착한 순간 그 모든것은 사라졌다. 옛날의 향취와 더불어 앞으로 펼쳐질 나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감으로 생기가 넘쳐났다.

교수님께 인사를 드려야 했다. 그동안 인사를 제대로 못한 죄송스러움과 더불어 앞으로의 지도도 부탁드림을 찾아뵈었다. 연구실 앞에서 나는 가방의 부피와 불편함으로 가방을 복도에 놔두었다. 그러나 그것이 실수였다. 가방분실.

거의 두시간여를 가방을 찾아 헤매다녔으나 남은 것이란 말도 못한 몸과 실망뿐이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가방을 복도에 놔두었다. 그러나 그것이 실수였다. 가방분실.

책만이라도 돌려달라는 호소를 했으나 양심과 가리가 먼 그는 역시 무응답이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방법을 쓰기로 했다. 책상에 해당하는 현금을 줄테니 책만이라도 돌려달라고 그의 이기주의적인 물음에 호소했다.

그의 이해타산적성정으로 마루 어와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 공과문을 붙이면서 나는 이런공과문을 우리 학교에 붙인다는 것이 정말 부끄러웠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나의 정성적 노력과 애착이 담긴, 나의 또다른 영혼을 그는 결국 돌려주지 않았다.

또한 불완전한 존재로서 우리는 스스로를 자각하고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에게 1개의 부패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사회에 10개의 부패를 부를수있다. 회피해저가는 양심의 불빛을 보며, 그 외침이 아무리 강할수록 누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겠는가? 대학인이 라는 말만을 뒤집어 쓴채 그 말에 주어진 혜택을 받기위해 우리가 존재한다면 이제 그 거주장소들을 벗어던지는것이 낫지 않겠는가?

경희 학우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시선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말자. 당장 내일 내가 죽음을 맞이할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경을 가지고 그순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것인지 생각할때 아닌가.

김상복

(임학·4)

최윤영

(물문·3)



교수동정

배종우교수 미국행

▲배종우(의대·의학)교수=오는 24일부터 5월4일까지 소아과학회 참석차 미국방문 ▲주홍재(의대·의학)교수=오는 7일부터 5월간 외과학회 참석차 일본방문 ▲송정상(의대·의학)교수=오늘부터 4일까지 제12차 한일심장병 심포지움 및 55차 일본심장병학회 참석차 일본방문.

동문모임

우신고 동문회

【서울캠퍼스】 ▲영복, 유신

=오는 2일 오후 5시, 불새다방 ▲양정, 경혜=오는2일 오후5시, 녹원

【수원캠퍼스】 ▲송·송=오는 오후 5시30분, 제대매점 ▲신목고=오는 3일 오후 5시30분, 공대휴게실 ▲영·영=오는 4일 오후5시30분, 공대휴게실 ▲제천향우회=오는 2일 오후5시30분, 공대휴게실 ▲우신고=오는2일 오후5시30분, 에이원 ▲배재, 이화=오는 3일 오후5시30분, 공대휴게실 ▲대구향우회=오는4일 오후5시30분, 공대휴게실 ▲반포고=오는5일 오후5시30분, 강남역 뉴욕제과앞

습득

본신자 본사 편집실로

【서울캠퍼스】 ◆학생증=▲손원일(국문·88) ▲전승남(영문·85) ▲정윤정(지리·87) ▲정혜선(화공·87) ▲정필원(경영·87) ▲김지희(영교·86) ▲

“소식을 기다립니다”

대학주보사는 독자 여러분의 자율적인 소식을 기다립니다. 각 과 동아리의 제세한 소식과 행사까지도 성실히 실어드리겠습니다.

학내에 있는 학생들이나 동문,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저희 편집실로 찾아 주십시오.

박상애(가정·86) ▲서효석(치·86) 【수원캠퍼스】 ▲학생증 ▲전지영(건축·88) ▲이성원(전산·88) ▲최정호(전지·83) ▲고병석(전지·86) ▲박진배(영문·89) ▲김수진(일문·89) ▲복수산나(서문·89) ▲최은옥(영문·89) ▲강소혜(중문·88) ▲김영기(토목·86) ▲김덕기(기계·81) ▲김진영(조경·87) ▲김도현(건축·82) ▲남경호(경영·87) ▲최지현(회계·90) ▲장대진(건축·85) ▲이기영(체육·87) ▲이상봉(화학·88) ▲선은주(농학·90) ▲노명철(산업·83) ▲박용웅(체육·85) ▲김동철(태권도·90) ▲권성훈(건축·89) ▲강규원(토목·89)

▲허희재(원예·87) ▲김현빈(불문·88) ▲최승준(기계·89) ▲이종수(건축·82) ▲임성수(토목·87) ▲김민정(설유·87) ▲이성기(무역·88) ▲나홍진(체육·87) 【수원캠퍼스】 ◆전자계산기=▲김정복 CASIO ML-81 전자계산기, 2호관 앞 저력8시경 전화박스에서 습득.

사회대 열두마당 강습회

사회과학대학 출판부인 ‘열두마당’에서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품물강습회를 연다. 사회대 학생을 대상으로 회비는 2천원이며 많은 참여를 바란다.

**집요한 질문으로
가끔 교수님을 당황하게 한다
그래서 건방지다는
소리 들을때가 있다**

적극적인 삶, 몰두하는 젊음 —
삼양그룹은 이런 젊은이들을 사랑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끊임없는 학구정신...
이것이 바로 삼양이 젊음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1924년 이땅에 산업의 씨앗을 뿌린 이후
섬유, 식품, 사료, 기계, 화학부문을 거쳐 기술의 문을 연
삼양의 개척정신은 이제 새롭게
고무, 의료용소재 및 제약, 발효공업 등
첨단산업에 도전합니다.
미래를 아낌없는 투자로 진지한 눈빛의
젊은이들처럼 삼양그룹은 진취적 기상으로
보다 나은 내일,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삼양

●주식회사삼양(化纖, 蠶絲, 水産, 精密化學) ●삼양중기주식회사 ●선일도당주식회사 ●삼양석유화학주식회사
●삼양화학주식회사 ●신원제분주식회사 ●다원산업(파이버) ●삼양종합연구소 ●영일회 ●수동정학회